

2014 년도 명문대학 조기지원 분석

지난 몇년간 미국 명문대학들은 거의 매년 지원자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원자 신기록은 단지 지원자가 많다는것을 의미하기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더불어 입학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각대학들에게 더많은 조기 지원자들을 뽑을것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조기 지원자들을 많이 뽑았고 이로인해 정규 지원은 더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진학은예상하는대로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년 학교 정책과 지난해 최종 등록한 학생수 등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가변성이 심하다. 이는 단지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교육정책 흐름과 학교들의 미세한 입시 변화들을 파악하여 정확한 예측 능력이 필요한 입시 세대가 되었다.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에서 왜 자신의 학교를 지원하느냐는 에세이 질문이 원서에 많이 생겨 났고, 전공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재정 보조에 대한 질문들을 모든 대학 원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이 올해 조기 지원자들의 입학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부분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초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입학허가된 학생들 대부분이 우수한 학업 능력, 훌륭한 리더쉽, 그리고 특별 재능이 많은 학생들로 대체적으로 우수 명문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전공과 진로, 학교 특성과 학생 성향의 부조화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거나 4 년안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많은 대학들이 입시 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올해 역시 가장 많은 우수한 지원자들이 지원한 해였지만, 지난해에 비해 입학 거절에 대한대학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해이다. 다시말하면 입학 연기(Defer)가 되면 이들 지원자들을 정규 지원에서 다시 읽어야 하고, 정규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기지원자들의 입학 거절률이 갈수록 높아 지고 있다. 또한 전공에 대한 명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조기 지원에서 유리한 해였다.

보다 구체적인 대학별 분석 이전에 조기 지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조기 지원할 학교를 가능한 일찍 선정하라.

학교 방문, 인터넷 조사, 졸업생 또는 재학생과의 만남등을 통해 그 학교의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입학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11 학년 2 월까지는 지원자가 원하는 조기 지원 학교를 선택하는것이 좋다.

둘째, 필요한 모든 시험 점수를 가능한 1 월말까지 만들어라.

대부분의 주니어 학생들이 12 월과 1 월에 있는 SAT 1 시험에 응시 한다. 가능하면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점수를 확보해야한다. 충분한 점수란 높을 수록 좋겠지만 각각의 섹션에서 70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영어와 수학을 합한 점수가 1500 이상이면 이상적이다. 또한 학생들이 11 학년 말까지 적어도 SAT2 점수를 2 개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째, 우수한 섬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라.

많은 우수한 섬머, 인턴쉽, 리서치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에게 SAT 1, 2 점수를 요구하며 가끔 AP 점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원서 지원 신청 마감일은 1 월에서 3 월까지이기 때문에 일찍 지원해야 한다. 섬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 재능, 그리고 다양한 스킬(skill)을 배울수가 있고, 미래 직업관이 정립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중요한 점은 우수한 섬머 참여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네째, 도전적인 12 학년 코스 선정과 우수한 학점을 유지하라.

아무리 11 학년까지 도전적인 과목 수강과 우수한 학점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12 학년 코스가 11 학년보다 너무 약하거나 12 학년초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조기 지원한 학교에서 입학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다섯째,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가능한 일찍 정하라.

흥미와 관심이 있는 과목을 깊이있게 공부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클럽활동, 섬머 참여, 리서치등을 통한 열정을 보여 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 대부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경험과 우수한 아카데미 성취를 가장 많이 보았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된다.

여섯째, 대학원서는 여름 방학때까지 끝내라.

가능하면 에세이와 원서 작업은 여름 방학 끝나기 전까지 모두 끝내고 12 학년 업데이트(up-date) 정보를 기다렸다가 10 월초쯤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정보를 만들어 대학과 충분한 교류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동시에 자신의 원서에 관심을 갖게 만들수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대학 조기 진학은 전문성, 리더쉽, 학생 성향,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를 가장 많이 본 해였다.

하바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지원자수 증가는더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하바드 대학은 지난해보다 조기 지원자수가 다소 감소 했지만 입학허가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총 4,742 명이 지원하여 892 명이 입학허가되었고 651 명이 거절, 그리고 3,196 명이 정규 과정 심사로 다시 넘어 갔었다. 올해는 총 4,692 명이 지원하여 992 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입학 허가률이 11% 증가된 수치로 지원자중 총 21%가 입학허가 되었다.

하바드 대학교 입학처장인윌리엄 피츠시몬스 (William Fitzsimmons)에 따르면 "올해 지원자들은 놀랄만한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다. 그들의 인종적, 경제적, 지역적인 다양성을 고려하고도, 아카데미과 교외활동이 매우 인상적으로 우수하고 균형이 잡힌 지원자들이 많았다." 이는 하바드가 성적과 교외활동 우수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들을 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 가능한 한 특정 계층이 입학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게 했고, 이는 경제적, 인종적인 요소, 그리고 외국인 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위해 하바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자수는 다소 감소 했지만 합격자수는 오히려 증가 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하바드 입학처장은 "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매년 눈에 보이지 않은 입학요소들(Invisible Factors)의 변화는 각 대학들의 입학정책과 방향에 시대적인 흐름,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무형의 요소들(Intangible Factors)이 무시 할수 없는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에 매년 입학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하는 입시정책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중요한 요소들은 아카데미와 교외활동이다. 아카데미는 학교 성적, 과목의 난이도, SAT 1,2, AP 성적, 경시 대회, 권위 있는 섬머 참여등이 중요한 요소이고, 교외활동 분야에서는 깊이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세가지 이상의 활동과 리더쉽 경험, 우수한 섬머 참여등을 의미 한다.

매년우수한 지원자수의 증가는 하바드가 보다 많은 학생들중에서 선택에 대한 기회를 갖는 동시에 다양한 그룹들에게 기회를 제공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많은 학생들을 조기에서 뽑아 정규는 훨씬 경쟁이 치열할 거라 생각된다. 지난 몇년간 조기 지원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기로하자.

2012 년도 조기 지원자는 총 4,231 명중 772 명이 합격, 2013 년도는 4,742 명이 지원하여 895 명이 조기 지원에서 합격하였고, 2014 년도는 4,692 명중 992 명이 합격하여 매년 조기지원자들의 합격이 100 여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이 2012 년도에 조기지원 정책으로 다시 바뀐이래 처음으로 조기 지원자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지난해 총 4,520 명이 지원하여 649 명이 입학허가되고 2,529 명이 정규 과정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302 명이 입학거절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총 4,304 명의 지원자들중 675 명이 입학허가를 받았고, 2,394 명이 입학 연기(Defer), 1,180 명이 입학 거절 되었다.

예일은 올해 역시 다른 해와 동일하게 인종적인 면과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예일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중 가장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학교가 영국식 거주용 대학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칼리지들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과 많은 교수들이 학교내에서 거주한다. 때문에 예일은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다. 이런점이 타 대학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자 입학과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지난 몇년간 예일 대학교 조기 지원자들 수를 살펴보자. 2011 년 5,257 명 중 761 명, 2012 년 4304 명중 675 명, 2013 년 4,520 명중 649 명, 2014 년 4,304 명중 675 명이 조기 지원하여 입학허가 되었다. 예일은 이상적인 총 신입생수를 1,300 명정도로 예상하지만 평균 1,300 명에서 1,500 명의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하고 있다.

하버드와 예일이 지난해에 비하여 조기 지원자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수는 증가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수 있다. 다양성을 중시하여 인종적, 지역적, 경제적인 요소들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 하여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뽑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프린스턴은 지난해보다 지원자수와 입학률이 약간 상승하였다. 지난해 총 3,810 명이 지원하여 697 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총 3,854 명이 지원하여 714 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입학거절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디퍼(Defer)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한 해이다. 총 3,042 명이 디퍼되고 49 명이 입학 거절되었다. 나머지 12 명은 조기지원을 철회 하였다.

프린스턴이 지난해 비해 많은 학생들을 디퍼(defer)한 이유는 올해 대학지원서 (Common Application)의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원서 지원 시기가 조금씩 연기가 되었다. 프린스턴은 이런점들을 고려하여 많은 거절 보다 지원자들 모두가 보다 많은 자료들을 정규 과정에서 제출하여 다시 평가 받을 기회를준 것이다. 지난해는 300 명이 거절되었다.

입학허가된 학생들은 32 개 국가와 미국 44 개주 출신들이다. 인종적, 경제적, 민족적인 요소들이 잘 고려된 학생 구성이고 외국인 학생이 약 8%, 여성 48%, 남성 52%, 레가시(legacy)15%의 비율로 입학허가 되었다. 최근 2 년간 프린스턴은 학교가 예상한 것보다 최종 등록 학생들이 많아 입학허가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올해의 정규 지원자들의 입학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이다.

콜롬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콜롬비아는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조기 지원자들이 지원한 해였다. 지난해 유독 많은 한국 여학생들이 입학허가되어 올해 지원이 조심스럽스러운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중하나였다. 지난해 3,126 명이 지원하여 638 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올해는 총 3,298 명이 지원하여 650 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모든 수치가 지난 해보다 다소 상승했고, 뉴욕에 위치한 관계로 모든 학생들이 콜롬비아 공동체 생활에 아주 잘 적응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하였다고 한다.

학교가 공과대학 성장을 원했고, 최근 공과대학 프로그램의 성장과 더불어 우수한 학생들 지원이 늘어 나면서 공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했고 동시에 많은 여학생들이 공대지원으로 몰리면서 공대 입학이 더욱 까다로워진 학교이다. 최근 학교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계층, 인종, 지역, 특별 재능등을 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콜롬비아는 전공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이와 관련된 시험 점수및 경험등을 타학교와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 하였다.

다트머스 칼리지: Dartmouth College

지난해 아이비리그 대학중 유일하게 지원자들의 수가 감소 했던 학교로 올해 지원자 증가를 쉽게 예측 할 수 있었던 학교이다. 특히 조기 지원자들 중 합격한 학생들은 전체 입학정원의 40%나 차지하여 조기 지원이 정규 지원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지난해 1,575 명이 지원하여 464 명, 올해는 1,678 명이 지원하여 469 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평균 SAT1 성적은 2154 이고 ACT 점수는 32.1, 학교 성적이 톱 10%인 경우가 94%로 지난해 86% 보다 훨씬 상승한 수치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입학이 매우 경쟁적이었다는 점을 알수 있다. 다트머스는 지난 몇년간 신입생들의 수를 정책적으로 1,090 명에서 1,120 명으로 증원하여 학생들의 양적, 질적인 요소의 확장을 꾀하였다. 이는 얼마나 조기 지원자들의 입학률이 정규 지원자들의 입학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ED 정책을 고수하는 아이비 리그 대학들(코넬, 콜롬비아, 유펜,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교육 제도, 교수진, 학생들 등의 요소도 있지만 충분한 기금확보를 통한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를 통해 재정적인 요소가 입학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지원자들에게 홍보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브라운은 지난해 조기지원 합격률이 브라운 역사상 가장 낮았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두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 3,010 명이 지원하여 558 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고, 올해는 총 3,088 명이 지원하여 583 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최근 몇년 동안 조기 지원자들이 가장 많았고 경쟁률도 가장 심한 해였다.

입학처장인 밀러(Miller)에 의하면 "지난 18 년간 브라운 입학처장으로 일하는 동안 올해(class of 2018) 지원자들이 최고의 그룹으로 입학 결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올해 지원자들중 325 명이 거절되었고 2180 명이 입학 연기 되었다.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엔지니어링, 생물, 비즈니스, 경제학, 그리고 영문학 순으로 인기가 있었고, 이중 엔지니어링 전공은 지난 3 년간 연속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이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50 개주중 41 개주에서 학생들이 입학허가 되었고이중 뉴욕주 출신이 81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캘리포니아 78, 매사츄세츠 63, 뉴저지 41, 커네티컷 29 명 순서로 입학허가 되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순으로 중국 학생들이 지난 몇년동안 가장 많이 뽑히고 있다. 한가지 이쉬운점은 최근 몇년동안 한국 학생들이

꾸준히 네번째로 많이 뽑히는 국가였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극소수 학생만 조기에서 입학허가 되었다. 최근 브라운 대학 입학이 매우 까다로워진 점을 잘 고려하여 지원 해야 한다.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가 45.5%, 여자가 54.5%로 여학생 입학률이 더 높고, 입학 허가된 학생들중 약 54%가 공립 학교 출신, 39%가 사립, 그리고 7% 정도의 학생들이 종교와 관련된 학교 출신들로 나타났다. 모든 명문 대학들이 무조건 학교 성적, 학교 명성, SAT 고득점자들만을 선호하지 않고 여러 인종, 분야, 지역등 다양한 요소를 입학 조건에 포함 시키고 있어 학교 선택, 균형 잡힌 활동과 우수한 성적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최고 학교 진학을 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유펜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조기 지원을 한 대학으로 경쟁률 역시 가장 치열했던 학교중 하나이다. 지난해 4,780 명이 지원하여 1,196 명이 입학 허가 되었고, 올해는 총 5,149 명이 지원하여 1,299 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지난해 벤지민 프랭클린의 인용구와 관련된 에세이가 많은 논란을 가져 왔고, 이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인용구 해석에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논란이 된 에세이 질문을 없애고 다시 원래 에세이로 돌아왔다. 경험과 이론의 조화를 강조하는 유펜의 특성이 최근 졸업후 취업을 하는데도유리하게 반영 되고 있어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으로 알려져있다.

올해 유펜의 신입생 규모는 2,420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중 약 53.6%의 학생들을 조기에서 뽑았다. 물론 정규는 중복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들이 있을가능성을 예상하여 학생들의 수를 훨씬 많이 뽑고는 있다. 하지만 최근 2 년간 프린스턴이 정규 지원자를 많이 뽑음으로 해서 최종 등록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기숙사에 수용 할수 있는 적절한 학생수의 제한으로 힘들어 했다. 그런점을 고려하여 각 대학들이 기존에 예상한 최종 등록 학생들을 적게 뽑고 많은 지원자들에게 대기자 명단을 줄 수가 있다. 이는 지원자들이 4 학년 성적을 잘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많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펜에 입학 허가된 학생들 중 약 51%가 여학생이고, 49%가 남학생이다. 이중 38%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지역적으로는 펜실바니아주 출신이 246 명, 뉴욕 192, 뉴저지 145, 캘리포니아 112, 플로리다 54 명 순이고, 국가 별로는 캐나다 17 명, 중국 16, 영국 15, 인도 11, 그리고 프랑스와 아랍 에미레이트 출신들이 각각 7 명 입학허가 되었다. 올해 유펜의 경우 연극, 미술 전공자들이 무척 증가한 추세로 대학이 매우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

코넬 역시 지원자 신기록을 세운 대학이다. 지난해 4,193 명이 지원하여 신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4,775 명이 지원하여 또다시 신기록을 갱신한 대학으로 조기 지원역시 완벽한 준비없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1,237 명 그리고 올해는 1,325 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많은 미국 대학 정보와 우수한 프로그램 참여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전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미국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을 한다면 그러한 노력, 시간과 정보가 대학 입학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많은 한국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중 코넬이 입학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코넬은 다른 아이비리그와 달리 전공을 선택하면 전공과 관련된 에세이를 써야 하며, 입학 사정관들과 전공 관련 분야 교수들이 입학에 관여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기때문에 깊고 확실한 전공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면 입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대학이다.

지난 몇년간 평균 3,500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평균 33%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4,000 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학생들의 재능, 리더쉽, 성적등이 모두 향상되면서 입학이 더욱 까다로워진 대학으로 바뀌었다.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중 하나인 스탠포드는 매년 지원자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입학역시 매우 까다로운 대학중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조기지원시 입학허가와 거절이 명확해 미국 명문대학중 조기지원자 거절이 가장 높은 대학중 하나이다. 지난해 총 6,103 명이 지원하여 725 명이 입학허가되었고, 올해는 6,948 명이 지원하여 748 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13.9%의 조기지원자들 지원이 상승한 수치로 가장 경쟁이 심한 대학 이었다. 올해 조기 지원자들중 약 593 명만 입학 연기되었고 나머지 5,607 명이 입학 거절되었다. 특히 올해 조기지원자들중 76%가 모두 A 학점 이상자들이 지원하여 사상 최고치의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매년 지원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학생 선발 기준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고 지역별, 인종별, 국가별, 경제적인 요건들도 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점에서 학교 성적, 리더쉽, 우수한 SAT 성적만으로 스탠포드 입학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 해였다. 올해도 미국 48 개주, 세계 36 개국가 학생들이 입학허가 되었다. 정규과정 지원자들이 30,000 명이 넘을거라고 예상을 하고있다.

스탠퍼드의 이론적이면서 실용적인 아카데미 특징, 다양한 인공적인 분배, 많은 특별재능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우수한 스포츠 팀을 통한 학생들 단합이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과 세계 학생들의 꿈의 학교가 되고있다. 많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지원으로 인해 최고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부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면 입학에 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악, 미술, 과학, 에세이등이 일정수준 이상이 된다면 제출할것을 추천한다.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는 올해 총 6820 명이 지원하여 612 명이 합격, 4,538 명이 정시지원으로 이월, 1403 명이 거절, 그리고 나머지는 원서가 미비하여 입학 결정이 안되었다. 지난해 6541 명이 지원하여 650 명이 입학허가된것과 비교하여 올해는 지원자수가 더 많았는데 입학허가된 학생수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최근 4 년동안 지원자들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입학허가율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MIT 에 입학허가된 학생들중 여자가 49%, 남자가 51%, 소수민족이 26%, 13%가 가족중 최초의 대학생, 74%가 공립 고등학교 출신들이었다. 이번 합격된 학생들중 미국 49 개주 486 개 고등학교에서 입학허가자들을 배출하였다. 합격자들중 1/3 이상이 국내나 국제 경시 대회 입상자들로 상상하기 힘들정도의 경쟁이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한 해로 입학보류, 즉 정규과정에서 입학을위해 재심사 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증가한 요인도 정규지원자들에게는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MIT 는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학업성적이 학교에서 5%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다. 또한 학생들 재능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으로 우수한 성적과 특정분야 재능이 있다면 입학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미국 명문대학 조기지원은 매우 힘든 한해였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입학 허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해이다. 매년 한국 학생들의 성향과 성적이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는 SAT 부정으로인해 선의의 한국학생들에게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었던 해이다. 물론 학교마다 선발 기준에 못미쳐 입학이 않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학원(Hakwon)" 이라는 단어를 일정도로 SAT 고득점에 올린한 한국 학생들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들로 인해 보이지않게 한국학생들이 명문대학 조기 입학에 일정부분 피해를 본 해이다.

한국출신 학생들의 입학을 최근 몇년간과 비교해볼때 올해 입학허가된 한국 학생들 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올해 지원한 우수한 학생들이 유독 입학 재평가(defer)를 많이 받은 해였다. 많은 대학들이 한국의 SAT 관리와 학생들의 동향에 관심이 있다는점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BOSTONedu